

2023 만화·스토리 해외 행사 운영 위탁용역(북미권역) 선정평가 종합심사평

본 심사는 7명의 전문 평가위원이 제안사의 해외 행사 운영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. 특히나 이번 행사는 2개 지역에서 LA의 B2B 뿐만 아니라 뉴욕의 B2C까지 다양한 타깃층을 대상으로 한 행사이니만큼 제안사의 연계된 관리 능력, 노하우와 경험이 충분한지와 더불어 사전 준비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.

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및 추진 계획은 우수해 보입니다. 그러나 전체적인 만화 콘텐츠의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이 아쉬우며, 참여하는 업체의 NEEDS 파악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. 사전 비즈매칭이나 성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해 보입니다.

뉴욕 B2C 전시회의 경우 K웹툰의 스타일에 맞게 구성이 된 것 같으나 일부 체험이나 부스 디자인이 전시 성격과 맞지 않은 것 같은 것도 있어 보입니다. 인력에 대한 타 전시 중복참여로 인한 참여율 저조로 집중적인 전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.

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의 웹툰과 스토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